

날카로움 되찾은 손흥민 '정확도 100%'

"손흥민이 지난 시즌 자신이 득점왕에 오른 이유를 팬들에게 증명했다." 올 시즌 골 가물에 시달려온 손흥민(31·토트넘)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영국 프레스턴의 딥데일 경기장에서 열린 프레스턴 노스 엔드(2부리그)와의 FA컵 32강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후반 85분까지 뛰며 두 골로 토트넘의 3-0 완승을 견인했다.

올 시즌 공식전 7, 8골로 지난 5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EPL 19라운드 이후 5경기 만에 득점이자, 다음 1골을 올린 지난 24일 풀럼과의 21라운드에 이어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다.

한 경기 멀티 득점은 지난해 10월 13일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홈 경기 이후 108일 만이다.

손흥민은 이날 두 골을 추가해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총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으로 인한 뼈 빠린 일정과 인과결절상으로 무더졌던 손흥민의 발끝이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아스

FA컵서 108일 만에 멀티골 '올 시즌 8골 3도움'

슈팅 4개 모두 유효슈팅 연결...내달 6일 연속골 도전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가운데)이 28일(한국시간) 영국 프레스턴의 딥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전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경기 후반 5분 선제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날을 상대로 유효슈팅 1개에 그쳤던 손흥민은 이날 4개의 슈팅을 모두 상대 골문 안으로 성공시키며 슈팅 정확도 100%를 자랑했다.

또 이 중 2개를 득점으로 연결하며 모처럼 멀티골로 필립 날았다.

슈팅 뿐만이 아니다. 유럽축구동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팀 내 최다인 2차례 드리블 돌파에 성공했고, 패스 정확도도 무

려 95.7%에 달했다. 이 역시 팀 내 2위다.

상대가 2부리그에서도 중위권인 팀이지만, 원정인 데다 챔피언십 소속 팀들의 거친 몸싸움과 견제를 고려할 때 손흥민의 활약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에게 양 팀 통틀어 최다인 평점 9.07점을 부여했다. 손흥민을 제외하면 평점 8점

을 넘는 선수는 없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대신 기자회견에 나온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코치는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라며 "해리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 득점을 만들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기뻐했다.

현지 전문가들도 손흥민이 지난 시즌 득점왕의 모습을 찾았다고 칭찬했다.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이자 패널로 활동 중인 앨런 시어러는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고, 토트넘 선배인 저메인 체나스는 "손흥민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BBC도 "손흥민이 상대와의 수준 차이를 증명했다"며 "후반이 시작하고 자신이 왜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올랐는지 팬들에게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손흥민도 이날 멀티골로 자신감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후 "자신감을 얻기 위해 이런 골들이 중요하다"며 "공격수에게 득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2월 6일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맨체스터 시티와의 정규리그 경기다. /뉴시스



여자농구 우리은행 김단비, 4라운드 MVP...이번 시즌 3번째

김단비의 시즌이다. 여자프로농구 2022-2023시즌 4라운드 최우수선수(MVP)의 영광도 김단비(우리은행)에게 돌아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FA)을 통해 새롭게 아산 우리은행 유니폼을 입은 김단비는 1~2라운드에 이어 3번째 MVP 수상으로 정규리그 MVP 수상 가능성도 더욱 높였다. /뉴시스

'빅토르 안'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코치 탈락...여론 영향 미쳤나



르 안을 비롯해 총 7명이 지원서를 냈다. 지난 12일 면접이 있었다.

빅토르 안은 2006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한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였다.

2011년 소속팀 성남시청이 해체되자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결심과 함께 러시아로 귀화했다.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러시아 소속으로 3관왕을 차지했다.

은퇴 무대로 삼으려 했던 2018 평창 올림픽에선 러시아의 선수단 도핑 스캔들에 휘말려 출전이 불발됐다.

지도자로 변신한 안현수는 2020년 중국 대표팀 기술 코치를 맡아 중국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메달 4개(금 2, 은 1, 동 1)를 따는 데 힘을 보탰다.

앞서 빙상지도자연맹은 빅토르 안의 코치직 지원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서를 내고 "빅토르 안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했을 당시 매국 논란이 일자 '이중국적이 가능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가 귀화 직전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며 "이중국적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뒤 몰랐던 척 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시스

완도,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제62회 전남체전 수영'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완도수영장서 진행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수영.

/완도군 제공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전남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관람객이 경기를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매주 종목별 경기 구

적과 관전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수영'이다.

수영 영법은 자유형, 접영, 평영, 배영, 잠영, 입영, 횡영 등이 있으나 올림픽 및 전남체전 정식 종목은 자유형, 접영, 평영, 배영 4가지이다.

는 참가할 수 없고 임원은 등록 기준 지 또는 출생지로 참가할 수 있다.

2022년 제61회 대회에서는 1위 여수, 2위 신안, 3위 순천, 2019년 제58회 대회에서는 1위 여수, 2위 영암, 3위 광양이 차지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로 대회 개최가 취소됐다.

제62회 대회에서는 전통 강호 여수시가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2022년 대회에서 4위, 5위를 한 영암군과 광양시가 2019년, 2018년 대회처럼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둬 여수시의 3회 연속 우승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한 작년 대회에서 새롭게 상위권으로 입성한 신안군과 순천시의 활약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개최지 완도군은 그간 하위권의 성적을 보였지만 2019년에 완공된 완도수영장에서 갈고 닦은 기량과 함께 개최지 이점을 살려 보다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이슈 기자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

TALK